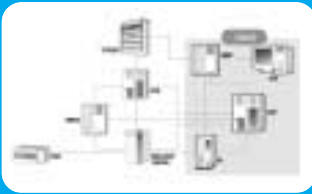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음성기반의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능망은 한마디로 이동통신망의 '두뇌'이다. 지능망을 사용할 경우 스위칭장비를 다시 디자인하거나 도
입하지 않아도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080서
비스, 평생번호서비스 등이 바로 이 지능망이며 이동통신망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지능망, 모바일 기반의 핵심기술 차세대 성장동력 지능망을 주목하라

인프라벨리, 모바일 지능망 솔루션의 선두주자

인프라벨리(대표 최영규)는 2000년 설립된 모바일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이번 벤처기업대상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인프라벨리가 보유한 기술은 이동통신망의 핵심기술인 인프라기
술로 지능망, 핵심망, 데이터망 등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가 제공하는 지능망의 특징은 스위칭장비
의 변경 없이 새로운 서비스의 추가나 변경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능망이 도입된 경우 도입 개
념에 따라서 통신망의 신규 서비스 적용이 매우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다.



인프라벨리는 현재 국내 이동통신 지능망 솔루션의 선두주자로서 WIN 규격 및 CAMEL 규격을 수용하는 지
능망 솔루션을 개발해 SKT, KTF, LGT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공급하며 상용 서비스 중이다. 또한, 인프라벨
리의 지능망 솔루션은 SCP, IP, SMP, SCE의 토털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인 20여 개
이상의 지능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 성장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ی겠다 ● 인프라벨리 최영규 대표 |
IT기술의 혁신적 발달은 우리에게 꿈의 모바일 세상을 열어주고 있다. R&D에 대한 지지치 않는 열정과 창의적
인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전직원이 하나되어 또다른 희망을 키우겠다. 앞으로 차세대 경제 성장동력인 휴대폰분
야에서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쌓아 나가겠다.

유엔젤, 차세대 지능망 BcN사업에 박차

유엔젤(대표 최충열)은 1999년 창립하여 2003년 벤처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술력
있는 무선 인터넷 및 유무선 이동통신망 솔루션 제공업체이다. 주력 제품은 지능형 솔루션으로 현재 차세대 서
비스 솔루션을 개발 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이다. 그 중 주력분야는 지능망의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인 BcN사업이
다. BcN이란 통신, 방송, 인터넷이 융합된 품질 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끊임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망을 말한다.



유엔젤은 제품과 서비스를 다양한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KT, KTF, LGT 등의 이동
통신사와 KT,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등의 유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또 해외에서는 몽골, 베트남, 태국, 말레이
시아 등의 유무선 사업자들을 상대로 시장 판로를 개척 중이다.



2005년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하겠다 ● 유엔젤 최충열 대표 | 올해는 통신사업자
의 투자부진으로 솔루션 개발업체들이 매우 고전한 한해였다. 하지만 유엔젤은 막대한 투자비와 연구개발로 인
력을 채용,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개발과 시장 개척으로 내년에는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하고 싶다.